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목 차

## ■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	1
2.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3
3.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	5
4. 시사점 .....	26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juwon@hri.co.kr, 02-2072-6235)  
                  정   민   연   구   위   원 (chungm@hri.co.kr, 02-2072-6220)

□ 경 제 연 구 실   :   【건설】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제조】 이진하 연구원(jinha@hri.co.kr, 02-2072-6269)  
                          【자동차】 류승희 연구원 (shryu@hri.co.kr, 02-2072-6217)  
                          【철강】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유화】 박용정 선임연구원 (yongjung@hri.co.kr, 02-2072-6204)  
                          【조선】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기계】 정 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 Executive Summary

### □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거시경제 동향)** 2020년 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경로에 진입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1분기 -1.3%, 2분기 -3.2%에서 3 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현 재 -1.3%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있다.

**(주요 산업경기 동향)**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산업경기 회복 조짐이 나 타났다. 특히, 재고는 증가세가 감소하고 출하는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감소하면서 둔화에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의 직전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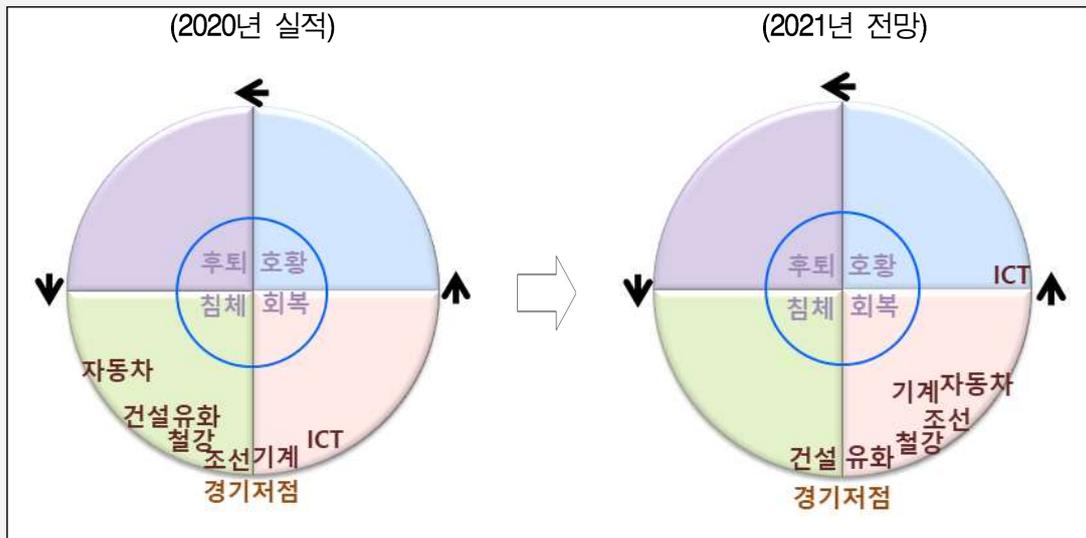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것이 전망된다. 물론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침체되었던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2020년의 기저효과에 의해 세계 수요는 늘어나 전반적으로 2021년 국내 주요 산업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 경기는 회복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 른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산업환경이 녹 록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ICT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호황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도체 제조 기계 등의 수요회복에 힘입 어 기계 산업은 회복세가 커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로 자동차 및 조선 산업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 산업의 회복 과 기저효과로 인해 철강 산업 경기도 반등이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수 요 회복과 제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 및 토 목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민간 및 건축 수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업황 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호황 - ICT)** (ICT) 2020년 ICT 제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우려되었으나, 반도체 부문의 선방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반도체 수요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2021년 ICT 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 비대면 시장의 확대 지속,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가속화 등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회복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2020년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sup>發</sup>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2021년 자동차산업**은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양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자동차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내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높은 실업률,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철강) 2020년 철강 산업은 생산과 출하 감소가 지속되는 등 산업경기가 침체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철강 산업**은 기저효과 및 국내외 주요 전방 산업 회복 영향 등으로 철강재 내수수요와 수출이 모두 반등하면서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2020년 글로벌 수요 위축과 수출단가 하락, 전방 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이다. **2021년 석유화학**은 원가 경쟁력 개선과 전방 산업 회복, 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이 예상되나, 공급과잉에 따른 부정적 수급 여건이 조성될 우려도 상존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방 산업의 생산 활동 위축이 심화된다면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 경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조선) 2020년 조선업은 공급과잉 해소의 긍정 요인과 코로나19<sup>發</sup> 세계 경기 및 교역 침체 등의 부정 영향이 혼재한다. **2021년 조선업**은 신규수주 반등 및 선박 수출 증가 등 물량 부문의 개선이 전망된다. 건조단가 부문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의 상승 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의 하락 요인 등의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조선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계) 2020년 기계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ICT 산업의 약진 등 일부 전방 산업의 개선에 힘입어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개선되었으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2021년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의 뉴딜 정책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의 업황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침체 - 건설)** (건설) 2020년 건설업은 건설기성액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건설수주액은 증가세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2021년 건설업**은 SOC 예산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수주 증가가 향후 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시사점

**2021년 예상되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2021년 대내외 경제 환경은 2020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에 주력한다. **셋째,**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조기 발주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COVID-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발전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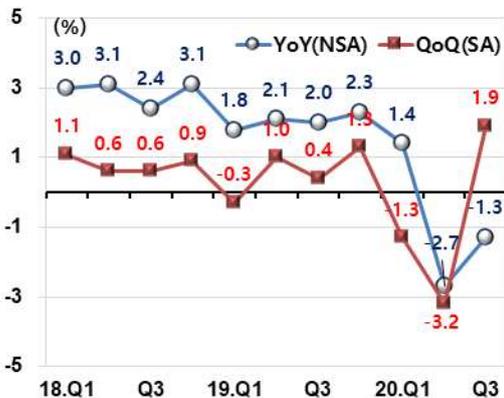
##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 (1) 거시경제 동향

#### ○ 최근 국내 경기는 상반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 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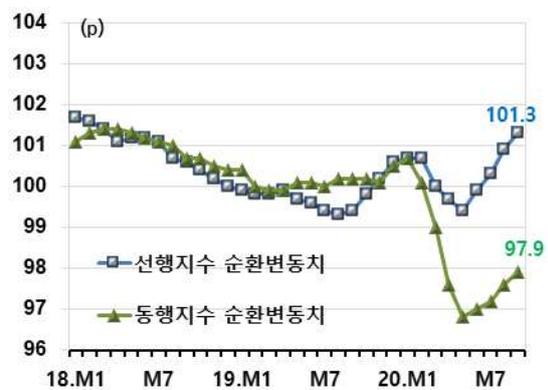
- 2020년 3분기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
  - 2020년 전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Delta 1.3\%$ , 2분기  $\Delta 3.2\%$ 의 마이너스에서 3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
  - 2020년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Delta 1.3\%$ 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20년 3분기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0.3%p, 전기대비 기준 3.8%p로서 3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함
  
- 2020년 1월부터 하락하던 경기 지수(동행지수, 선행지수)는 5월을 저점으로 상승 반전하며 회복세를 지속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0년 5월 저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0년 6월 97.0p → 7월 97.2p → 8월 97.6p → 9월 97.9p
  -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0년 6월 99.9p → 7월 100.3p → 8월 100.9p → 9월 101.3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비는 계절조정자료 기준.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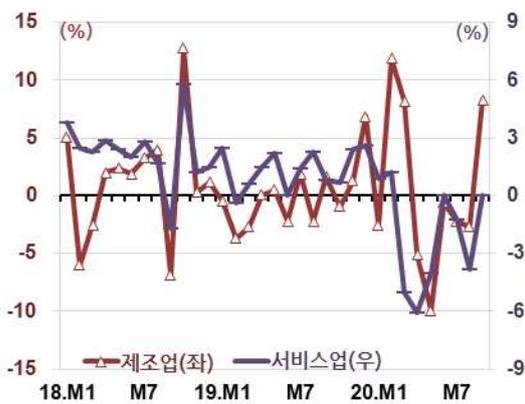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주요 산업경기 동향

○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산업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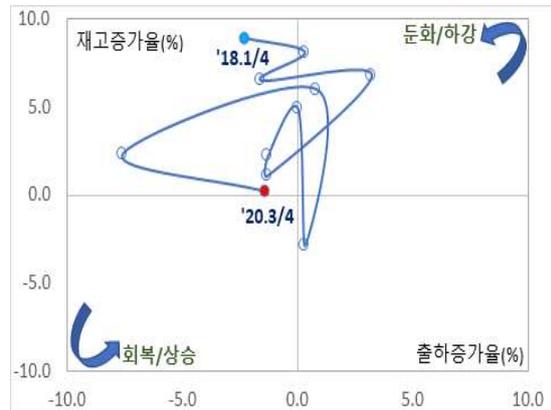
- 최근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마이너스 폭이 감소
  - 제조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8월  $\Delta 2.7\%$ 에서 9월  $8.3\%$ 로 큰 폭으로 개선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동기간  $\Delta 3.8\%$ 에서  $0.0\%$ 로 개선
  
- 제조업의 출고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감소한 가운데 재고 증가율 증가세도 감소
  - 제조업 출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1분기  $0.8\%$ , 2분기  $\Delta 7.6\%$ , 3분기  $\Delta 1.4\%$ 로 마이너스 폭이 감소
  - 한편 제조업 재고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6.0\%$ , 2분기  $2.3\%$ , 3분기  $0.2\%$ 로 증가세가 주춤
  - 재고는 증가세가 감소하고 출하는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감소하면서 둔화에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의 직전 수준인 것으로 판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1) 전년동기대비.  
 2) 서비스업 생산은 불변지수 기준.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2.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제한 완화 및 경제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 전망. 물론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침체되었던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2020년의 기저효과에 의해 세계 수요는 늘어나 전반적으로 2021년 국내 주요 산업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경기는 회복 국면에 위치. 다만,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ICT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호황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도체 제조 기계 등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기계 산업은 회복.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로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 산업의 회복과 기저효과로 인해 철강 산업 경기도 반등.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제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2021년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 및 토목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민간 및 건축 수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임

### ○ (호황) ICT

- ICT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 비대면 시장의 확대 지속,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가속화 등으로 성장 전망

### ○ (회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기계

- 자동차 : 전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내수 및 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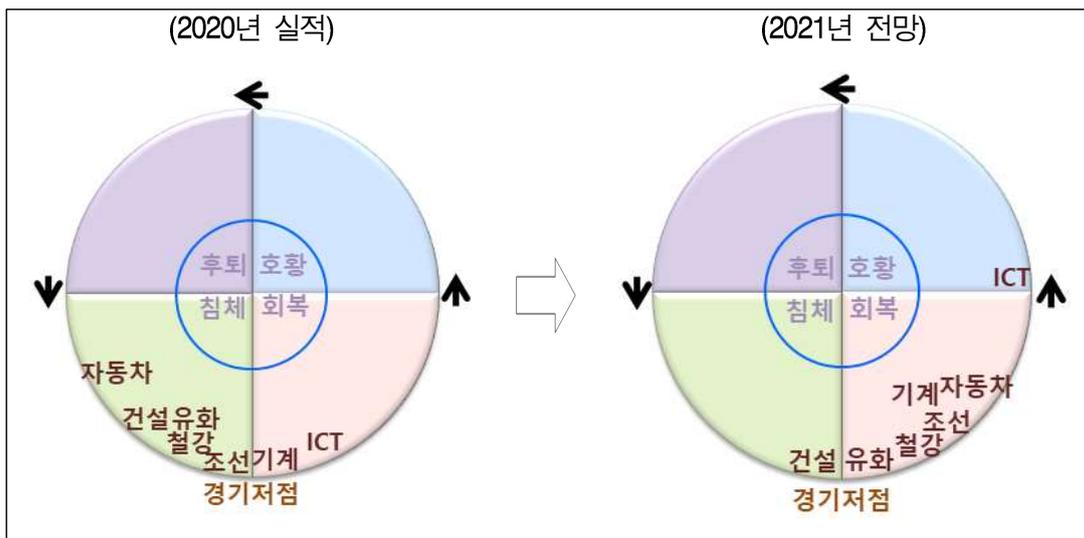
- 철강 : 2021년 철강 산업은 기저효과 및 주요 수요 산업 회복 영향 등으로 내수, 수출이 모두 반등하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 원가 경쟁력 개선과 전방 산업 회복, 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이 예상되나, 공급과잉에 따른 부정적 수급 여건이 조성될 우려도 상존
- 조선 : 세계 경기 및 글로벌 교역 회복 등의 요인으로 수주 및 수출 물량의 개선이 전망되는 반면, 수주절벽의 영향 가시화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
- 기계 : 2021년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의 뉴딜 정책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경기는 개선될 전망

○ (침체) 건설

- 건설 : SOC 예산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감소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3.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 ① 건설업

SOC 예산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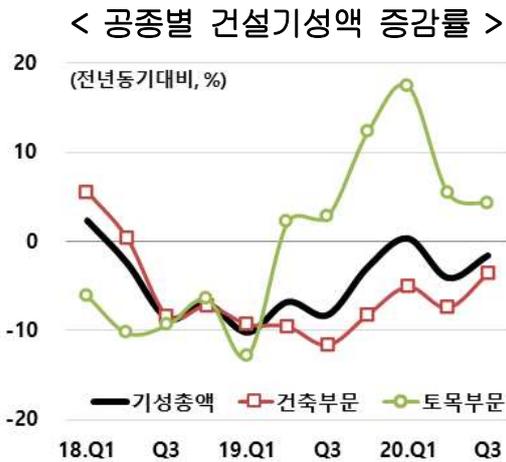
○ (2020년 경기 동향) 건설기성액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건설수주액은 증가세로 반등하는 모습

- (건설기성) 2018~2019년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건설기성액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소폭 회복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2018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4분기 이후 감소폭이 축소
- 공종별로는 침체를 지속하던 건축기성액이 2019년 3분기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토목기성액은 2019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

- (건설수주) 건설수주액은 2019년 보합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 건설수주액은 2020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하여 2019년 보합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
- 공종별로는 건축수주액이 2020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33.3%, 토목수주액도 동기간 11.2% 증가함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 (2021년 전망)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관련 규제 지속 등으로 민간·건축 수주는 감소 예상
- (공공·토목) 2021년 정부 SOC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한국판 뉴딜 및 국가 균형 발전 계획,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토목 수주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1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26.0조 원으로 명목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한국판 뉴딜, 국가 균형 발전 계획, 공공택지 조성 등이 공공·토목 수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건축)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지속 및 2020년 주택 수주의 기저효과, 비주거용 건축 위축 등으로 인한 민간·건축 수주는 부진 예상
  - 2021년 주택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규제 도입 전 주택 수주 증가의 기저효과 등이 주택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개선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주거용 건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1)</sup>
주체별	공 공 (조 원)	31.4 ( 7%)	35.5 ( 13%)	37.3 ~ 40.9 (5% ~ 15%)
	민 간 (조 원)	112.1 ( 5%)	120.0 ( 7%)	100.8 ~ 105.5 (△16% ~ △12%)
공종별	토 목 (조 원)	33.5 ( 2%)	37.0 ( 10%)	39.5 ~ 44.0 (7% ~ 19%)
	건 축 (조 원)	110.0 ( 6%)	118.5 ( 8%)	98.6 ~ 102.4 (△17% ~ △14%)
전 체 (조 원)		143.5 ( 5%)	155.5 ( 8%)	138.1 ~ 146.4 (△11% ~ △6%)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한 수치임을 유의.

1)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건설업은 한국판 뉴딜의 구체화, 3기 신도시 지연 우려, 해외건설수주 회복세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한국판 뉴딜의 구체화) 2020년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
    -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총 28개의 세부 과제에 160조원(국비 114.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됨
    -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에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의 일부 사업 분야가 건설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통적인 정부 SOC 투자와는 차별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사업에서 건설기업에게 신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 (3기 신도시 지연 우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었으나, 토지보상 등에서 계획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건축 수주도 지연될 가능성 존재
    -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 공고가 시행됨
    - 정부는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택지 조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건설기업의 건축 수주 인식과 주택의 공급 시기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해외건설수주 회복)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해외 건설 발주 물량 증가 등으로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기대
    -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수주는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2021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백신 및 치료약 개발, 경제 봉쇄 조치의 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 정부들의 재정 투입 확대 등으로 건설 발주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국내 건설기업들은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 확대 전략이 필요함

② ICT 제조업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 비대면 시장의 확대 지속,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가속화 등으로 성장 전망

○ (2020년 경기 동향)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우려되었으나, 반도체 부문의 선방으로 양호한 성장세 시현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출하는 1분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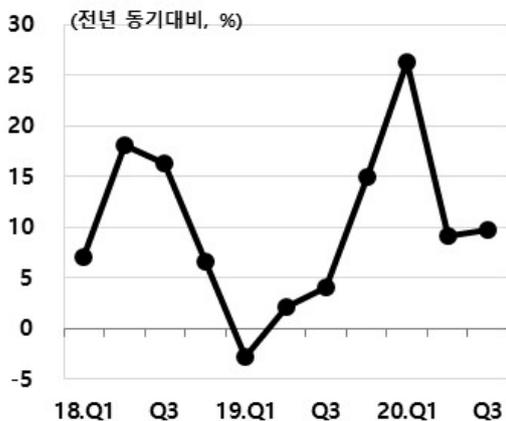
-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1분기 높은 증가율(각각 전년동기대비 26.3%, 13.7%)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세 유지
- 재고지수는 2019년 보였던 감소세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증가되는 흐름 시현

- (부문별 경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업황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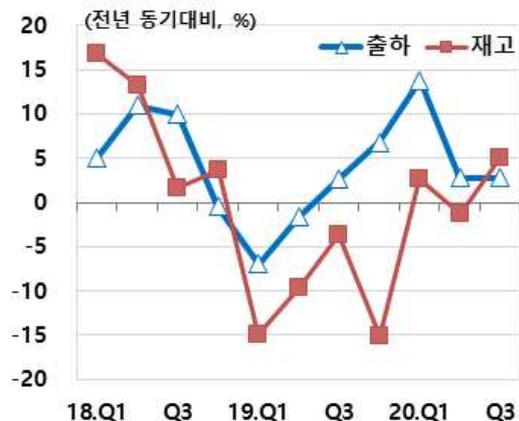
- 반도체 : 2019년 시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반도체 수요의 확대를 유도
- 스마트폰 : 성장 둔화 추세속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수요 감소, LCD에서 OLED로의 시장 전환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된 한편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하는 모습

<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21년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 비대면 시장의 확대 지속, 주요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가속화 등으로 성장 전망
  - (경기 여건)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경기 부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ICT 부문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진행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속이 ICT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수출) ICT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높지 않은 회복세를 보인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주요국 ICT 제품 수요 증대 등 요인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 다만, 미국, 중국 등은 자국의 ICT 기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활용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 ICT 산업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품목별) 비대면 환경의 확산, 5G의 본격 도입, 인공지능 기술 확대 등으로 국내 3대 주력 품목의 성장 기대
    - 반도체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와 5G, AI 등 신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의 동반 수요 증대 예상
    - 스마트폰 : 5G 지원 스마트폰, 폴더블 모델 등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수요 역시 증대되어 시장이 회복될 전망
    - 디스플레이 패널 :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LED에서 선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기대

< IC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2)</sup>
생 산 (조 원)	322 (△12.5%)	325 (1.1%)	334 ~ 340 (2.9% ~ 4.6%)
수 출 (억 달러)	1,769 (△19.7%)	1,792 (1.3%)	1,876 ~ 1,983 (4.7% ~ 10.7%)
수 입 (억 달러)	1,084 (1.2%)	1,091 (0.6%)	1,125 ~ 1,152 (3.1% ~ 5.6%)

자료 : 잠정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CT제조업은 정보통신방송기기 품목을 의미.

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비대면 일상화, 인공지능 활용 본격화, 디지털 화폐 경쟁 등이 2021년 IC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비대면 일상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어 관련 시장과 기술의 빠른 성장이 전망

- 재택근무, 온라인 거래, 온라인 교육 등의 활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을 넘어서 편리함과 효율성 증대 등의 이유로 확산될 가능성 높음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통신 기술은 물론 드론, 로봇 등 무인·자동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개인의 고성능 IC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기술의 역할이 강조

- (인공지능 활용 본격화)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며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자동화가 본격화 되는 등 인공지능의 실질적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과 ICT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해 고성능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부문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
-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적 표준화와 윤리적 원칙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 (디지털 화폐 경쟁)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법정통화로서 디지털 화폐의 활용을 추진

- 디지털 화폐는 그간 민간이 발행해온 가상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여 안정성이 높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 중국은 선제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
-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화폐를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 촉진이 기대

③ 자동차산업

전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내수 및 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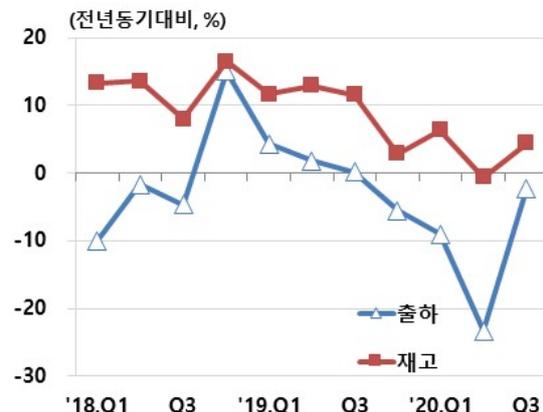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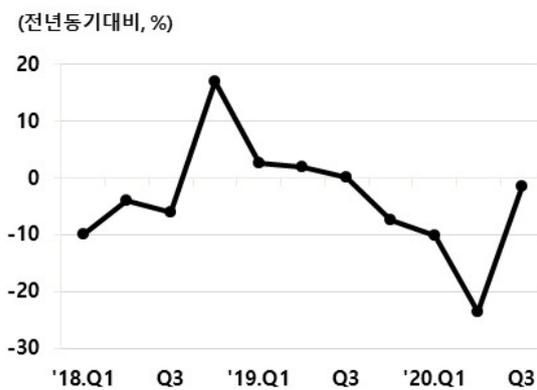
○ (2020년 동향)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상반기 크게 위축되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

- (생산 및 재고·출하)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 및 일부 공급 차질 등으로 자동차 생산, 출하지수가 2분기 크게 하락하였으나 3분기 감소폭이 완화
  -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분기  $\Delta 10.2\%$ , 2분기  $\Delta 23.6\%$ , 3분기  $\Delta 1.5\%$  기록, 출하지수 증가율 또한 2분기  $\Delta 23.3\%$ 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3분기  $\Delta 2.2\%$ 로 감소폭 완화
  - 자동차 재고지수는 1분기 6.4%, 2분기  $\Delta 0.6\%$ 에서 3분기 4.4% 증가
- (수출) 코로나19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 지속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분기  $\Delta 18.4\%$ , 2분기  $\Delta 47.6\%$ , 3분기  $\Delta 5.1\%$ 로 감소세 지속<sup>3)</sup>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HS 코드 기준으로 분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21년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양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자동차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내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 수요 증가) 2021년 세계 경기 회복과 2020년 수출 급감의 기저효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주요국의 내수 부양 효과와 코로나19 불확실성 축소로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의 기저효과도 더해져서 2021년 수출증가율은 7.7% 전망
- 다만, 2021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만 반영된 3.1% 수준의 소폭 상승만 보일 것으로 전망

- (내수 수요 증가) 낮은 금리,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나 높은 실업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은 민간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도입 및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
-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인한 높은 실업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은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수입 자동차 수요는 2020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26~27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4)</sup>
생 산 (만대)	395 (△1.9%)	356 (△9.8%)	365 ~ 378 (2.5% ~ 6.2%)
내 수 (만대)	154 (△0.9%)	161 (4.7%)	164 ~ 168 (1.9% ~ 4.3%)
수 출 (만대)	240 (△2.0%)	195 (△18.9%)	201 ~ 210 (3.1% ~ 7.7%)
수 입 (만대)	24 (△6.1%)	26 (5.1%)	26 ~ 27 (1.9% ~ 6.1%)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수입은 통관 기준.

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 가속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경쟁 심화,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 가속화) 주요국의 친환경 경기부양책 도입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경기부양책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친환경차 생산 및 구매 인센티브 확대 예상
    -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연비 규제 완화조치 철폐,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예고
    - 중국 또한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전기·수소차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등 표명
  -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경쟁 심화) 완성차기업들의 자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엔진, 변속기 등의 기본 전기차 요소를 갖춰놓은 근간으로, 플랫폼 기반 전기차 생산 시 성능, 공간 활용 등에서 더욱 효율적
    - 폭스바겐의 MEB(Modular Electric Drive Matrix), GM의 BEV3(Battery Electric Vehicle 3), 현대자동차의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등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전기차 출시
    - 정교한 플랫폼 보유가 기업의 전기차 사업 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자체 플랫폼의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 RCEP 등 다자통상체제 확대 및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축소 등으로 자동차산업 시장 진출기회 확대 예상
    - 아세안 포함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의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 자동차 수입 관세가 축소될 전망
    - 또한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권 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축소
    - 다만,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탄소세 도입, 환경 기준 강화 등이 여전히 국내 자동차 수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④ 철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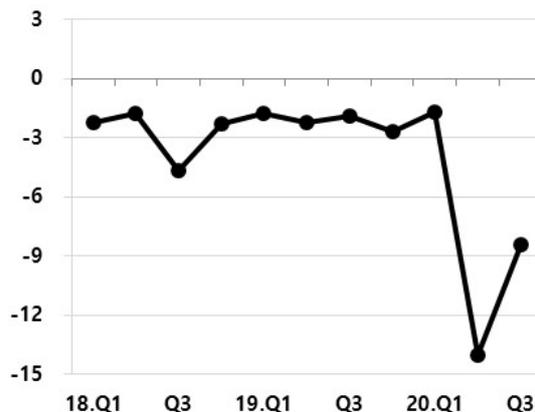
2021년 철강 산업은 기저효과 및 주요 전방 산업 회복 영향 등으로 내수, 수출이 모두 반등하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경기 동향) 생산과 수출이 모두 급감하며 경기 불황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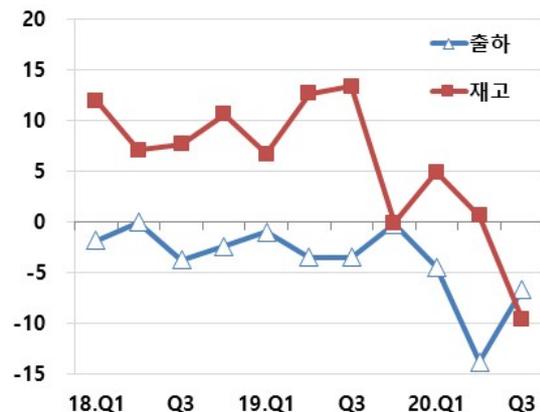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2017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생산 및 출하 지수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분기 급감하며 철강 산업 경기 침체가 심화
  -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2020년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며 경기 침체 국면이 심화
  - 출하지수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철강 산업은 불황 국면이 지속 중이나 생산 급감으로 재고는 감소세로 전환
- (수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재 수입 수요 감소로 철강 수출이 감소
  - 2020년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4.9% 감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16.9% 감소<sup>5)</sup>
  -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수요 침체로 세계 철강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강 수출이 감소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5)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21년 전망) 기저효과 및 국내외 주요 전방 산업 회복 영향 등으로 내수, 수출 물량이 반등하면서 철강 생산이 증가할 전망
  - (수요 반등) 2020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및 글로벌 철강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수요가 반등
    - 2020년 경기 침체로 감소했던 철강 수요는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수요 증가로 반등할 전망
    - 주요 수요 산업 중 자동차, 건설 등의 회복에 힘입어 철강 내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업 부진 등이 회복을 제한
    - 세계 철강 수요 회복 및 전년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영향으로 철강 수출 또한 확대될 전망
  - (공급 증가)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생산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하회할 전망
    - 내수 수요 증가, 기저효과 영향 및 중국 저가 철강재 공급 증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주요 수요 산업 회복 영향으로 국내 철강 생산은 반등할 전망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국내외 주요 수요 산업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철강 생산 회복이 제한적일 가능성 상존

< 철강산업 전망 >

(단위: 백만 톤)

		2019	2020(E)	2021(E) <sup>6)</sup>
총수요		83.6 (Δ0.6%)	78.1 (Δ6.6%)	79.3 ~ 83.3 (1.5 ~ 6.6%)
	내수	53.2 (Δ0.9%)	49.0 (Δ7.9%)	49.6 ~ 52.1 (1.3 ~ 6.3%)
	수출	30.4 (Δ0.2%)	29.1 (Δ4.2%)	29.7 ~ 31.2 (1.9 ~ 7.2%)
총공급		83.6 (Δ0.6%)	78.1 (Δ6.6%)	79.3 ~ 83.3 (1.5 ~ 6.6%)
	생산	73.6 (Δ2.2%)	70.3 (Δ4.4%)	70.4 ~ 73.3 (0.1 ~ 4.2%)
	수입	10.0 (12.4%)	7.8 (Δ22.3%)	9.0 ~ 10.0 (14.8 ~ 28.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6)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철강 산업은 탄소규제 대응 강화, 리쇼어링 활성화, 스마트팩토리 구축 본격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

-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트렌드가 확산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 업계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확대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일본과 중국 또한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탄소중립<sup>7)</sup> 목표를 밝히는 등 세계 주요국의 환경규제가 강화
- 한국도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 중이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밝힘
-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2021~2025)이 도래함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이 불가피
- 이에 국내 철강 업계는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철강공정의 탈탄소화 등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전망

- (리쇼어링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고부가·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리쇼어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안정적인 소재 및 부품 공급을 확보할 필요
-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입규제가 심화되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철강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계획 중이며, 정부 및 유관기관 또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스마트팩토리 구축 본격화)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조업효율성 향상, 생산원가 절감 및 고품질화를 도모

- 철강 산업은 성장 정체 및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
- AI,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및 원가 절감,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

7)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숲 조성,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함.

⑤ 석유화학산업

원가 경쟁력 개선과 전방 산업 회복, 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이 예상되나, 공급과잉에 따른 부정적 수급 여건이 조성될 우려도 상존

○ (2020년 경기 동향) 글로벌 수요 위축과 수출단가 하락, 전방 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는 등 침체 국면

- (생산 및 재고·출하) 내수와 수출 부진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생산 감소가 지속 중이며, 출하와 재고 역시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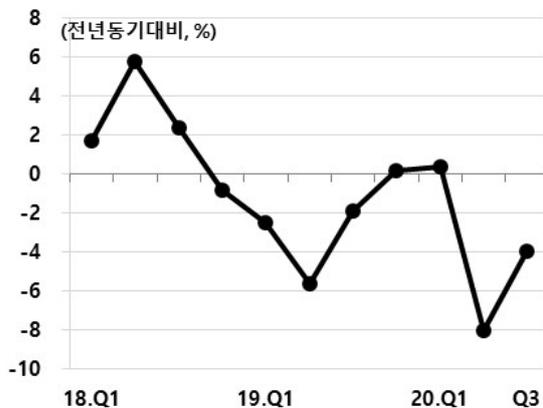
- 전방 산업과 수출 부진으로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1분기 0.4%에서 2020년 2분기, 3분기 각각  $\Delta 8.0\%$ ,  $\Delta 3.9\%$ 까지 감소세 지속
- 출하와 재고 증가율도 각각 2020년 1분기 0.9%, 3.1%에서 3분기  $\Delta 4.2\%$ ,  $\Delta 7.0\%$ 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업황 부진이 지속

- (수출) 글로벌 수출시장의 수요 위축과 제품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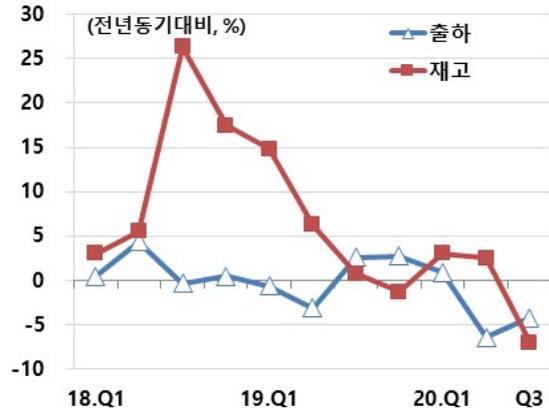
-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 축소와 국제유가 회복지연에 따른 수출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sup>8)</sup>은 2020년 3분기까지 누적기준(약 291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약 18.6% 감소
- 석유화학제품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은 2020년 3분기 누적기준(약 125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약 18.1% 감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 MTI 21 석유화학제품 코드 분류 기준.

- (2021년 전망) 원가 경쟁력 개선과 전방 산업 회복, 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 전망
  - (생산) 원가 경쟁력 개선 및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하면서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
    -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천연가스 기반의 ECC(Ethane Cracking Center)와 원유 기반 NCC(Naphtha Cracking Center)의 생산비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향상
    - 중국의 파라자일렌(PX) 증설 등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연기되었던 생산설비 확장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수급 여건이 조성될 우려도 상존
  - (수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언택트(Untact)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는 수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
    -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등은 수출 반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위생용품, 포장재 등 비대면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설비 가동과 자급률 확대, 저가 범용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확대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
  - (내수) 국내 전방 수요산업 업황 회복의 영향으로 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방 수요산업인 자동차, 가전, 건설 등의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내수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전방 산업의 생산 활동 위축이 심화된다면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상존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9)</sup>
생 산 (만 톤)	2,155 ( 0.0%)	2,120 (△1.6%)	2,144 ~ 2,169 (1.1% ~ 2.3%)
수 출 (만 톤)	1,180 ( 3.4%)	1,165 (△1.2%)	1,177 ~ 1,195 (1.0% ~ 2.6%)
수 입 (만 톤)	125 (17.7%)	105 (△15.7%)	110 ~ 113 (4.8% ~ 7.6%)
내 수 (만 톤)	1,100 (△1.8%)	1,060 (△3.6%)	1,077 ~ 1087 (1.6% ~ 2.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

9)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석유화학산업은 친환경 정책 확대, 수입규제 강화, 이종 산업과의 융합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친환경 정책 확대) 각국의 친환경 정책 도입과 탈석유 등 친환경 트렌드가 부상함에 따라 고기능성 제품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
    -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배출 제로계획' 등 국내외 친환경 산업정책 도입의 영향으로 향후 석유화학산업에서도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확대
    - 더욱이 환경적 가치가 고려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성향도 증대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포장 소재 등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임
  - (수입규제 강화) 주요국들의 제조업 육성 및 자국 산업 보호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는 2020년 11월 말 19개국에서 74건(조사 중 22건 포함)이 조사 및 시행 중이며, 인도(21건, 조사 중 10건 포함)와 중국(12건, 조사 중 2건 포함)이 가장 많은 수준임
    -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의존도는 약 48.1%(1~10월 누계)에 달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 수출 부진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종 산업과의 융합) 중장기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 재편 노력이 활발해질 전망
    - 석유화학 선도기업들은 의약 분야의 레드 바이오(Red Biotech), 농업의 그린 바이오(Green Biotech), 화학·에너지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White Biotech)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 이외에도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및 반도체 소재 등 고성장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석유화학업체인 미국의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듀폰(DuPont)은 2017년 합병 후 2019년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사하여, 농업, 범용화학제품, 전기전자 소재, 바이오 등의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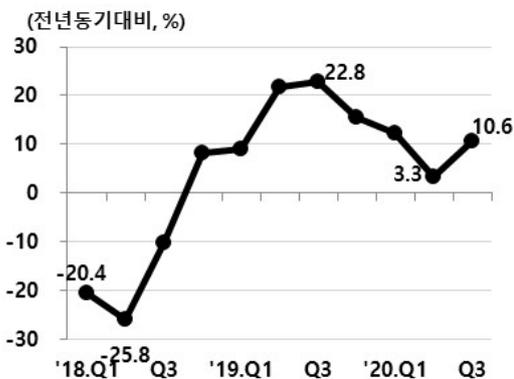
⑥ 조선업

세계 경기 및 글로벌 교역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수주 및 수출 물량 측면의 개선이 전망되는 반면, 수주절벽의 영향 가시화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

○ (2020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공급과잉 해소의 긍정 영향과 코로나19발 세계 경기 및 교역 침체 등의 부정 영향이 혼재

- (선박 생산) 조선업 생산은 공급과잉 영향에서 벗어나며 증가세 유지
  -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2013~2018년간 감소세를 지속했던 조선업 생산은 2018년 4분기부터 증가세 유지
  - 2019년 3분기, 최근 10여년간의 정점(전년동기대비 22.8%) 이후 하락했던 조선업 생산지수 상승률은 2020년 2분기 국지적 저점(전년동기대비 3.3%) 이후 상승
- (선박 수주)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는 감소했으며 신조선가지수는 하락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침체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발주 및 수주 역시 비정상적인 흐름을 시현
  - 2020년 1~10월간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량은 260만 CGT을 달성했으며, 이는 2016년 연간 220만 CGT 기록 이후 최저 수준
  - Clarkson 신조선가지수는 2016~2019년간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20년 하락하며 1~10월간 월평균 128.0p를 기록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신규수주량 및 신조선가지수 >



자료 : Clarkson.  
주1) 2020년 신규수주는 1~10월간 누적.  
주2) 2020년 신조선가지수는 1~10월 월평균 자료.

- (2021년 전망) 신규수주, 수출 등 물량 부문 개선이 전망됨과 동시에 건조 단가는 상승 및 하락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신규수주 증가) 환경규제 대응 차원의 수요, LNG 선박 부문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 강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 수주량의 증가 전망
    -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수주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 급감에 대한 기저효과 영향도 작용하면서 2021년 신규수주는 8.5~11.0백만 CGT를 전망
  - (건조 단가 보합) 선박 건조 단가는 상승 및 하락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기대 확산 및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은 선박 건조 단가의 상승 요인
    - 코로나19 재확산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철강 수요 감소, 중국 내 철광석 재고 증가 지속 등의 요인은 후판 가격 경로를 통한 건조 단가의 하방 요인
  - (수출 증가) 선박 수출은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하회 가능성도 상존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에 따르는 경기 회복과 교역량 증가, 환경규제로 인한 신조선 주문 증가 등의 수출 증가 견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다만 회복기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가 및 인도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선박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상존

< 조선업 전망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10)</sup>
신규수주량 (백만 CGT)	9.9 (△26.1%)	4.4 (△55.6%)	8.5 ~ 11.0 (93.2% ~ 150.0%)
신조선가지수 (p)	131 (1p)	128 (△3p)	124 ~ 132 (△4p ~ 4p)
수출규모 (억 달러)	202 (△5.2%)	193 (△4.5%)	198 ~ 205 (2.6% ~ 6.2%)

자료 : 신규수주량과 신조선가지수는 Clarkson, 수출규모는 한국무역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혹은 전년대비 증감,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1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조선업은 국내 조선사의 일감 부족, 친환경 트렌드의 기회 및 리스크 요인, 분산 공급 체인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국내 조선사 일감 부족) 코로나19발 수주절벽의 영향에 따르는 인도 물량 감소 및 일감 부족 우려
    - 2020년 코로나19발 수주 급감에 따르는 2022년 인도 물량 감소 예상
    - 감소가 예상되는 2022년의 인도 물량이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2021년 하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 부족 현상이 우려됨
    - 2022년 수주가 반등할 경우 2021년의 일감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저유가 지속 및 경기 반등 미약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양날의 검, 친환경 트렌드) 친환경 트렌드 강화에 따르는 기존 선박 수요의 둔화 및 친환경 연료 이용 선박에 대한 투자 증가 기회 요인의 상존
    - 코로나19로 친환경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으며 석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됨. 이는 원유 소비와 이동 및 정유·화학제품의 소비와 이동 등을 위한 통상적인 선박 수요를 제한할 가능성
    - 2022년 1월 유럽에서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sup>11)</sup>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에 따르는 노후선박 교체 가속화 및 친환경 연료 이용 선박에 대한 투자 증가 등 기회 요인 존재
  - (분산 공급 체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일국 발주 집중 생산 방식보다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분할 건조 생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 코로나19 이후 공급 체인 측면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제기
    - 이번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선주들의 중국 필드 방문, 검수, 인도 등 모든 일정이 중단되어 어느 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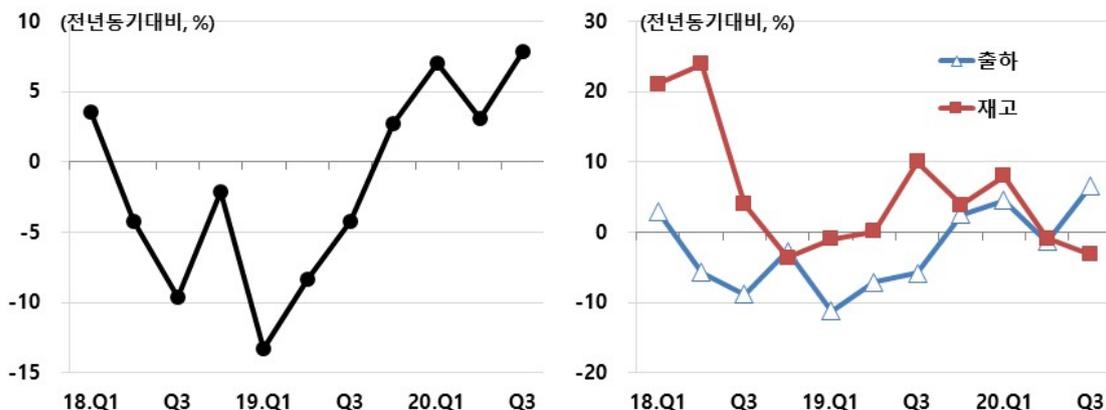
11) 2020년 9월 16일 EU 의회는 해운업을 온실가스(GHG) 배출권 거래제(ETS)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lobal Data Collection System for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의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년 9월, 'EU 의회의 해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시사점').

⑦ 기계산업

2021년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의 뉴딜 정책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 경기는 개선될 전망

- (2020년 경기 동향)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ICT 산업의 약진 등 일부 전방 산업의 개선에 힘입어 일반 기계 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개선되었으나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최근 개선세를 보이면서 재고 증가율은 하락세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일반기계 생산 증가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
  - 일반기계의 출하 증가율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고 증가율은 하락세를 기록해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수출입)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 ICT 산업 등 일부 전방 산업 호재로 수입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
  - 일반기계의 수출은 2020년 10월까지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Delta 8.7\%$  (2019년 1월~10월 :  $\Delta 3.8\%$ )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8.4%로 증가
  -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증가율은 동기간 각각  $\Delta 3.7\%$ ,  $\Delta 4.7\%$ ,  $\Delta 14.6\%$ 로 하락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
  - 국내에서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 증가를 견인함

< 일반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1)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일반기계를 C29로 분류함에 따라 기존 일반 목적용 기계 기준을 확장하여 특수목적용 기계를 포함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준으로 재분류, 이에 따라 과거 수치와 불일치.

- (2021년 전망)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의 뉴딜 정책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 경기는 개선될 전망이다
- (기계수주) 2021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2020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방 산업 업황 개선, 정부 뉴딜 정책 등으로 기계 수주는 증가
  -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 설비투자 및 기계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SOC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계 관련 수요가 소폭 늘어날 전망
  - 저금리 기조 유지로 투자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이를 상쇄
- (수출 플러스로 전환)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기계 수요 증가, ICT 산업 업황 호황, 기저효과 등으로 일반기계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재확산 리스크도 상존
  -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또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등 ICT 산업 호황이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요는 지속 증가
  - 다만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19	2020(E)	2021(E) <sup>12)</sup>
기계수주 (조 원)	18.9 (△6.7%)	20.9 (10.5%)	21.4~22.3 ( 2.5~6.5%)
수 출 (억 달러)	523 (△1.8%)	482 ( △7.9%)	511~527 (6.0~9.5%)
수 입 (억 달러)	335 (△14.9%)	362 (8.0%)	371~380 (2.5~5.0%)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기계수주액은 선박제외 기준으로 통신기계, 전기기계, 도로주행차량, 기타수송기계, 의료 및 정밀 측정제어기기, 철조구조물 등은 제외.

2) 수출과 수입은 일반기계 기준이며,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1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시나리오와 경기 개선 시나리오를 적용해 전망치 도출.

- (주요 현안) 2021년 기계산업은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시대,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 확대, 글로벌 로봇 강국 도약 등이 이슈로 부각
  -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구축 시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
    - 2021년부터 바이드노믹스가 시작되는 미국은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중국도 디지털 경제를 축으로 한 '新인프라 투자'가 경기부양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0~2021년 동안 투자 규모는 약 2.1조 위안이 될 것이라고 추정
  -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 확대) 일본 수출 규제를 넘어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핵심 부품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 부품 자립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어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 핵심 주요 산업의 자립화 또는 공급선 다양화 전략을 고려
    - 이에 대기업 상생협력과 지속적인 정부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관련 기계 및 부품 기업들이 수혜가 기대
  - (글로벌 4대 로봇 강국 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0월에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을 목표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
    -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8년 294억 달러에서 2022년 724억 달러로 연평균 25.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정부는 2021년 로봇 예산을 2020년보다 32% 늘렸으며,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을 확립하기 위해 매출 1천억 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을 20개 이상 육성 및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 1단계(2020~2022) 단순 보조, 2단계(2023~2025) 인간협업, 3단계(2026~) 자율 수행 등 로봇 역할 및 수행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3단계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여 적용 산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

#### 4. 시사점

첫째, 2021년 대내외 경제 환경은 2020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한국 경제 반등세 안착에 힘써야 함
  - 재정 투입의 대상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통해 재정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함
  - 글로벌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어 발생 가능한 글로벌 경기 재침체의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둘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에 주력한다.

-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향후 세계 경제 반등이 예상되나 주요 시장 디커플링(경제상황격차)에 대응하여 시장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력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
-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주력 수출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수출 품목 다양화를 추구

- 특히,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품의 프리미엄화를 통해 수출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해야 함
-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협정 및 공급망 구축 등의 새로운 통상환경이 조성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바이드노믹스 시대는 동맹국과 연대 강화 및 국제공제체제 복원 움직임이 강화되어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불협화음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큼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도 요구됨

**셋째,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 규제 완화, 투자환경 및 심리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함
- 특히 정부의 뉴딜 정책에 기업들이 대규모 마중물 투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이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업황과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맞춤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구조적 불황의 징후가 나타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활법 및 기촉법의 대상 기업 확대 및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강화, 기업 간 결합 때 관련 제도상의 특례적 조치 마련이 필요
- 한편 기업들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비상 경영'이라는 화두 아래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점검해야 함

넷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조기 발주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및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공공사업 조기 발주 확대 및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낮추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을 완화하고 부족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사업 회복의 필요성 인식,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유인책 마련이 필요
- 건설 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등 관련 신산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영효율성 제고와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함

다섯째, COVID-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발전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소재 등과 같은 혁신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관련 기술을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 기술 수요 변화도 적절히 고려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 **HRI**

2021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건설】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 제조】	이진하	연구원	(jinha@hri.co.kr, 02-2072-6269)
【자동차】	류승희	연구원	(shryu@hri.co.kr, 02-2072-6217)
【철강】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석유화학】	박용정	선임연구원	(yongjung@hri.co.kr, 02-2072-6204)
【조선】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기계】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